

영원한 이상형 심어준 20세기 소설의 걸작

아나운서 이숙영씨가 뽑은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는 황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며 또 어디에 있는나를 깨닫게 해주죠.”

매일 아침 7시 SBS FM에서 <이숙영의 파워 FM>을 진행하는 아나운서 이숙영씨(41)가 뽑은 책은 미국작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범우사)다. 대학시절 이 책을 처음 만났던 그는 지금까지 몇 번인지도 모를 만큼 읽고 또 읽었다. 이 책을 읽은 후 개츠비는 그의 마음속에 이상형으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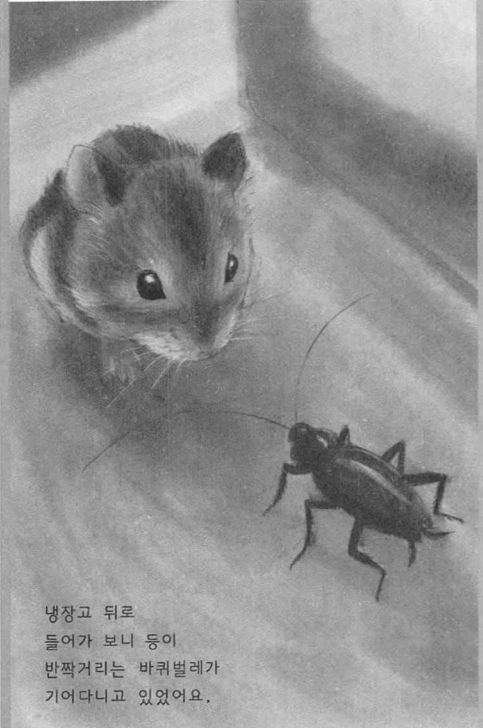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당하고도 그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개츠비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영혼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개츠비와 같은 사람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죠.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한 영화 <위대한 개츠비>도 감동적이었죠. 아마 레드포드만큼 개츠비라는 인물을 깊게 연기할 수 있는 배우는 없을 거예요.”

재즈 시대인 1920년대를 묘사한 것으로 유명한 피츠제럴드의 대표작인 이 소설은 황폐한 물질 문명 속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개츠비라는 인물을 통해 형상화한 20세기 미국 소설의 걸작이다. 피츠제럴드는 특유의 담백한 문체로 1920년대 미국 사회를 시니컬하게 묘사한다.

“피츠제럴드는 다른 어느 작가보다 동시대인들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그려낸 작가라고 생각해요. 이 소설은 황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며 또 어디에 있는나를 깨닫게 해주죠.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이씨는 작가 피츠제럴드에게도 강한 인간적 매력을 느낀다고 말한다. 윌리엄 포크너, 어네스트 헤밍웨이, 싱클레어 루이스, 에즈라 파운드 등과 함께 1920년대 미국문단을 풍미했던 피츠제럴드는 알콜 중독과 좌절, 화려한 재기, 심장마비로 인한 죽음 등 영화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 이씨는 이런 환멸에 가득찬 생활을 오히려 ‘낭만적인 준비’라 불렀던 피츠제럴드의 ‘지독한 낭만주의’를 사랑한다.

이씨는 일주일에 평균 두권 정도의 책을 읽는 독서광이다. 그의 최근 독서목록을 채운 책은 유마리의 《생명》(문학사상사)과 함정임의 소설 《아주 사소한 중독》(작가정신), 그리고 황주리의 에세이 《날씨가 너무 좋아요》(생각의나무)다. 여기저기서 ‘잡문’ 청탁으로 원고에 치여 산다는 그는 연말쯤 유명 카페를 돌아보고 쓴 《어디서 만날까?》(가제)를 펴낼 예정이다. - 최갑수 기자



냉장고 뒤로
들어가 보니 등이
반짝거리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보송이의 작은 모험 중에서



보송이의 작은 모험

김규연 글 · 그림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기르기
시작하다 버리는 애완동물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해 주는 그림책

마루벌의 좋은 창작 그림책

도서출판 마루벌은 우리 어린이들의
생활과 정서에 맞는 좋은 창작그림책을
꾸준히 기획·출판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의욕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mail:editorial@marubol.co.kr



도 서 출 판 마 루 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305-2 / 전화 790-4150 / 팩스 790-4151
http://www.marubol.co.kr